

보도시점 4.27.(월) 조간 < 4.26.(일) 12:00 >

중기부,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클리닉'으로 중소기업 현장 애로 원스톱 해결

-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4월 27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 12개 분야 전문가가 최대 7일간 직접 기업 현장 방문하여 진단부터 해결까지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을 4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혹은 유선을 통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진단부터 맞춤형 해결 방안까지 통합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예비창업자이며, 사행성·숙박업·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 분야는 ▲창업 ▲금융·자금 ▲회계·세무 ▲기술 ▲생산관리 ▲수출입 ▲법무 ▲인사·노무 ▲경영전략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특허 등 12개이다.

창업, 수출입, 기술분야는 최대 7일, 그 외에는 최대 3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며, 자문료 35만 원 중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하루 7만 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으로 수준 높은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현장클리닉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번 없이 1357콜센터 상담, 비즈니스지원단 누리집(www.smes.go.kr/bizlink)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위원의 추천을 통해 각 기업에 맞는 현장클리닉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단일 수행기관 체제로 운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행기관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한국생산성본부로 확대해 전문가 인력 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상담 품질과 서비스 속도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진단* 보고서도 새롭게 제공한다. 현장클리닉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인공지능(AI) 분석 결과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진공, 한국평가데이터 등 1.9억 건의 기업자료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기업진단으로 외부환경·경영성과·내부역량 등 분석 후 맞춤사업 추천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지방청 내방이나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현장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해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전환(AI·DX)·디지털전환(DX), 환경·사회·투명경영(ESG)·탄소중립, 기후대응기술(기후테크), 기술보호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승택	(044-204-7340)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장재인	(044-204-73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책임자	팀 장	안규영	(055-751-9521)
	제조 SI지원처	담당자	과 장	임상표	(055-751-9520)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책임자	팀 장	이재준	(02-6205-8121)
		담당자	과 장	윤지혜	(02-6205-8122)
	한국생산성본부	책임자	센터장	김택수	(02-724-1197)
		담당자	팀 장	류한진	(02-724-1243)

□ **비즈니스지원단**

○ **(현장클리닉)**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이 곤란한 문제를 전문가가 직접 기업에 찾아가 통해 단기간 내 해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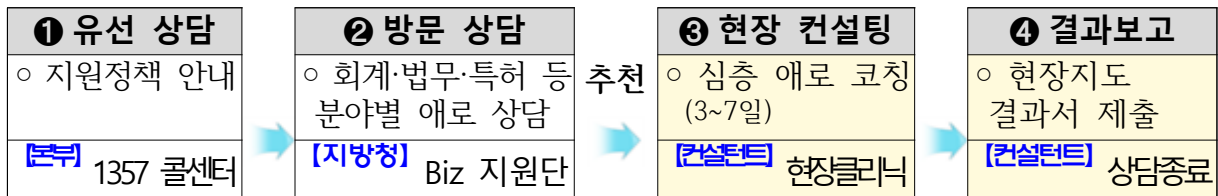
■ **지원 규모** : 年 3천건 내외

* 클리닉 수당 35만원/日 (정부 80%, 기업 20%), 최대 7일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절차** : 중소기업은 ①유선 → ②지방청 내방 → ③컨설턴트 기업방문을 통해 분야별 애로 상담 및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지원단 지원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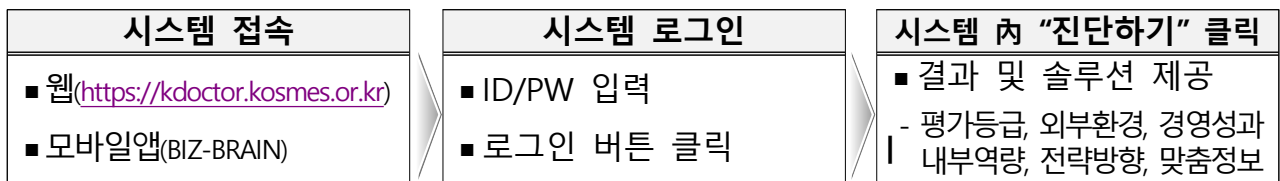
■ **지원 분야** : 창업, 경영, 회계, 세무, 수출입, 마케팅 등 12개 분야

【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지원 내용
창업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등록, 사업 아이템 검토 등
금융·자금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기술	신제품/신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제조/공정기술 자문, 기술사업화 분석, R&D 자문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계약서 검토, 법률 분쟁 대응 방안 검토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시장환경분석, 비즈니스모델(BM)수립, ESG컨설팅, 위기관리 대응전략 등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정보시스템 도입 전략 등
마케팅·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특허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자문 등

- **(개요)** 신청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기업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외부환경·경영성과·내부역량 등 분석 후 맞춤형사업 추천
 - * 중진공DB 78만개사, NICE신용평가·한국평가데이터 등 1억 9천만건 데이터 수집
- **(대상)** 2개년 표준재무제표* 보유 중소기업
 - * 신청기업의 재무성과 변화 추이 분석 필요
- **(방법)** PC·모바일앱에 접속 후 “진단하기” 클릭(약 1분 소요)
- **(제공)** 약 15페이지의 진단보고서 제공(무료)

【 AI진단 프로세스 】



- **(구성)** 외부환경, 경영성과, 내부역량 등 분석을 통한 맞춤 정보

목 차	개선
① 요약	■ 평가등급, 외부환경, 경영성과, 내부역량, 전략방향, 맞춤정보
② 기업현황	■ 기업개요, 재무현황, 인증정보, 수출정보, 종업원 추이
③ 외부환경	■ 산업지표, 산업환경
④ 유사업체 분석	■ (동종업계 유사 매출액 기업) 재무상태, 손익계산, 재무비율 비교
⑤ 경영성과	■ 재무비율, 손익분기점, 비용구조 건전성, 현금흐름 분석
⑥ 내부역량	■ 기술확보, 생산관리, 마케팅 역량 등 기술성·사업성 분석
⑦ 전략방향	■ (성장로드맵 제시) 전략방향, 전략 포지셔닝, 세부 실행내용
⑧ 맞춤정보	■ 중소기업 맞춤 지원사업 정보

- **(특징)** AI진단을 통한 개선전략 분석 후 비대면진단을 통한 실행
 - **(고객불편 해소)** 비대면 AI진단을 통해 전문가 방문 없이도 中企 스스로 경영 전반에 대한 강·약점, 성장로드맵 분석이 가능
 - **(비대면진단과의 연계)** 설비가동율, 불량률, 재고관리 등에 대한 현재 수준 분석은 현장진단 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연계지원 실시